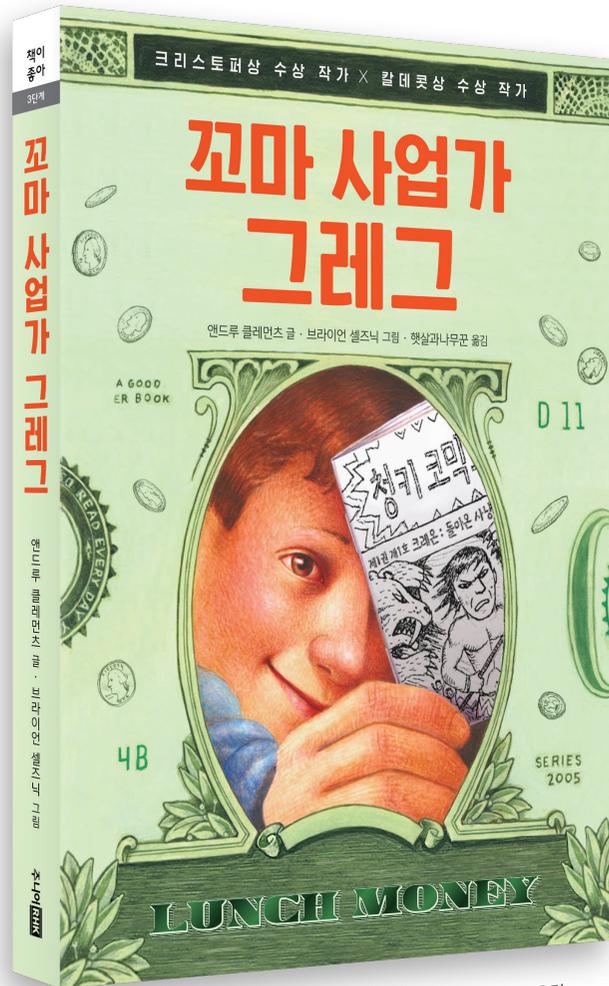


주니어RHK **온책읽기** 독서 활동지 <꼬마 사업가 그레그>

- 현직 초등 교사 이시내 집필 -



앤드루 클레먼츠 글 | 브라이언 셀즈닉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260쪽 | ISBN 978-89-255-7564-3 | 초등 고학년 대상

유쾌한 언어 전쟁 《프린들 주세요》 작가
‘앤드루 클레먼츠’가 들려주는 꼬마 사업가 그레그의
돈과 경제, 부와 성공의 이야기

★★★★★
현직 초등 교사
이시내 추천
★★★★★

★★★★★
출판평론가
한미화 추천
★★★★★

★★★★★
미국 아마존·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5-1 국어 | 2. 작품을 감상해요 | 6-1 사회 | 3.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
| 5-2 국어 | 3.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 6-2 국어 | 1. 작품 속 인물과 나 |
| 6-1 국어 | 6. 내용을 추론해요 | 6-2 국어 |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이들은 어른의 짐작보다 더 '돈' 때문에 선택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험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목표 금액을 세워 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은요? 흔쾌히 친구에게 간식을 사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떡볶이를 얼마만큼 먹어야 친구 생일 선물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꼬마 사업가 그레그》속 그레그는 집안일부터 시작해 이웃집 눈 치우기, 한여름에 레모네이드 팔기 등을 통해 용돈을 버는 등 돈 버는 데 특출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입니다. 어느 날, 그레그는 문득 학교야말로 수많은 고객이 모인 거대한 시장이란 사실에 눈을 뜹니다.

그레그는 먼저 싼 값에 장난감을 사서 학생들에게 팔아 보지만 교장 선생님의 경교로 사업을 접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레그는 다시 도전합니다. 직접 쓰고 그린 만화책으로 '칭키 코믹스'란 브랜드를 만들어 파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레그의 만화책 사업이 잘되자, 라이벌 친구 '모라' 역시 그레그와 비슷한 책을 팔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따라 했다는 생각에 둘의 해묵은 갈등은 심해지고, 교장 선생님은 칭키 코믹스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광고문을 게시합니다. "학교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 금지! 만화책을 가져와도 안 된다!" 그레그와 모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까요?

실제 교사였던 작가 앤드루 클레먼츠는 일상에서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결코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합니다. 어린이의 고민은 바다에 잠긴 빙하의 숨은 조각처럼 애정 어린 시선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작가는 얇은 단서로도 깊이 있는 질문들을 줄줄이 끌어 올립니다. 그뿐인가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읽는 걸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돈밖에 모르던 욕심쟁이 그레그가 앙숙 모라와 동업하기로 한 결정처럼 말이지요!

그레그는 모라와 함께 만화책 사업을 시작하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둘을 돕는 수학 교사 제트 선생님을 보며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생각에 닿습니다. '항상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대체로 그럴 뿐이다.'라고요. 이제 그레그는 모라와 제트 선생님과 함께 교육 위원회에 칭키 코믹스 판매를 건의하기까지 이릅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도망치지 않고 갈등을 마주하는 법을 깨우치면서 그레그는 여러 질문을 떠올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은 잘못된 건가?', '나는 돈을 얼마나 갖고 싶지?', '돈을 원하는 만큼 갖는다면 무얼 할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그레그가 사건을 겪으며 마주하는 질문은 독자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아이들은 그레그가 발견한 돈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의 순간이 무엇인지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결국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꼬마 사업가 그레그》를 읽으며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 혼자가 아닌 친구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더 멀리 내다보며 더 풍성하게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챈 그레그의 시간이 어린이 독자 마음에 진하게 스며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읽는 시간이 건강하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이시내 (김포 가현초등학교 교사)

책을 읽고 기록하고, 나눕니다. 그림책과 동화책에 대한 북토크 진행과 온책읽기 자료 제작, 독서대회 심사위원, 교사 연수, 학부모 대상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동화책 200》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booknteacher

책을 읽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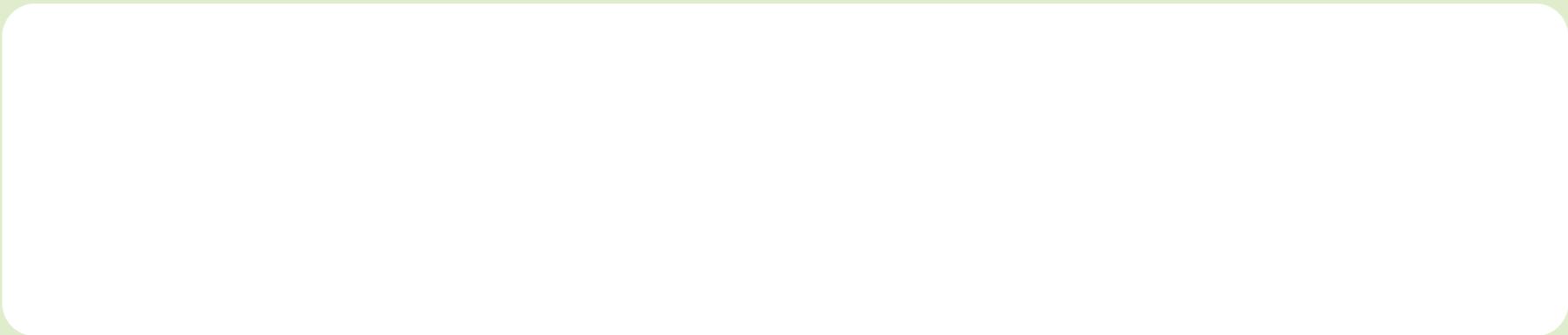
1. 앤드루 클레먼츠 작가의 다른 책을 읽거나 들어 본 적이 있나요?



2. 책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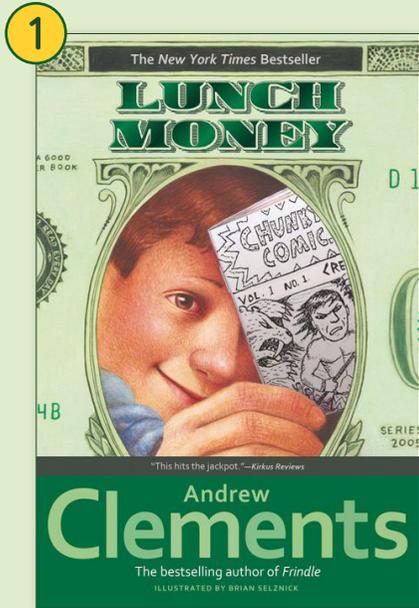


3. 어렵다면 차례를 보고 함께 생각해 볼까요? 차례 중 3개 이상 골라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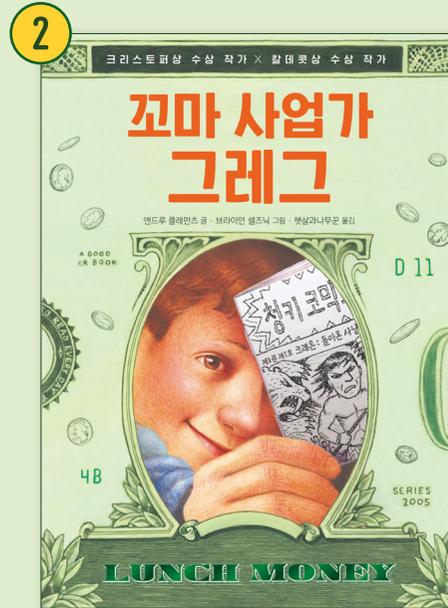


책을 읽기 전

각 나라 각 출판사마다 책 표지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표지가 마음에 드나요? 이유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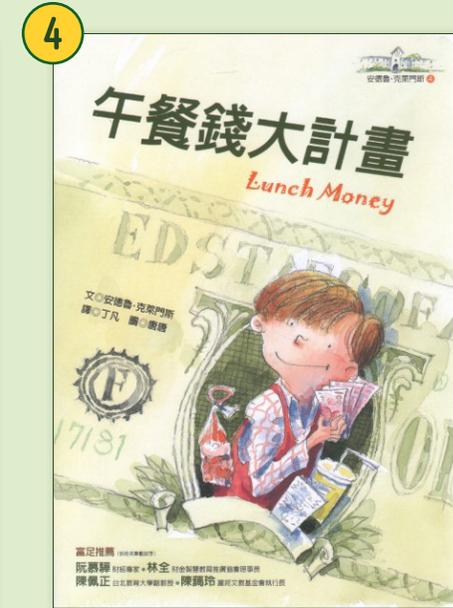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책을 읽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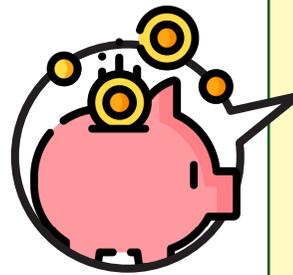
표지와 제목, 차례를 보면 사업가와 돈이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돈은

다.



그레그는 학교에서 장난감을 팔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대신 학교가 25센트 동전이 가득 들어 있는 거대한 저금통 같다는 생각에 이르지요. 그리고 자신의 신제품이 망치 역할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금통을 깨부수는 망치! 그레그의 신제품은 무엇까요?



그레그가 다니는 미국 초등학교는 한국 학교와 달라요!

5학년 1학기 시작 : 8월 말이나 9월 초
 1학기 끝, 방학 : 12월 중부터 1월
 5학년 2학기 시작 : 1월 중순
 중간 방학 : 4월, 가을
 2학기 끝, 방학 : 5월 말
 6학년 시작 : 8월 말이나 9월 초
 (학교마다 달라요)

1인 기업 청키 코믹스의 판매 현황입니다. 그레그는 첫 주의 매출 목표를 25달러로 세웠어요. 만화책 100부를 팔아야 가능하지요. 그레그는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 1부 판매 가격 : 25센트

* 1달러 = 100센트

날짜 / 실적	9월 9일 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1일 수요일	9월 12일 목요일	실적	
판매 부수	12부	15부	18부	17부	총 판매 부수	
					총 매출	

청키 코믹스가 점점 잘 팔리는 까닭을 알아보까요?

① **○人口**

② **표지** 가 눈길을 확 끈다.

③ **거리** 이 *흡인력 있다.

④ **○○기** 가 *박진감 넘친다.

힌트 : 본문 35쪽

*흡인력 : 빨아들이는 힘

*박진감 :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적극적이어서 현실처럼 느껴지는 느낌

그레그가 쓰고 그린 청키 코믹스 내용을 소개해 봅시다.



제1권

제2권

제3권

“결국 이 세 주인공들은 마지막 편에 함께 나온다.
크레온, 레온 그리고 에온.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이다.”

(본문 42쪽)

청키 코믹스의 마지막 편 내용을 상상해 써 봅시다.

그레그와 모라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일까요?



그레그



모라

본문 73쪽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이건 다 네가 돈 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라서 그래. 넌 언제나 그랬어.
‘내 거야, 다 내 거야.’ 넌 그런 생각 밖에 안 해!”

“거짓말이에요!”

그레그와 모라의 대화를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1. 그레그는 정말 돈만 아는 욕심쟁이일까요?

YES / NO

2.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까요?



7장까지 모두 읽어 보았나요? 그레그의 청키 코믹스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첫 주 매출 목표에 가까워지나요?

YES / NO

날짜	9월 9일 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1일 수요일	9월 12일 목요일
판매 부수	12부	15부	18부	17부 +4부(모라 1부+3부)

- 1부 판매 가격 : 25센트
- 첫 주 매출 목표 : 25달러(100부 판매)
- 1권 만드는 데 드는 비용 : 2센트
- 판매원(테드) 인건비 : 2부 판매당 5센트

모라가 그레그에게 말한 청키 코믹스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야기가 재밌고, 그림도 맘에 들어. 하지만...

힌트 : 본문 90~91쪽



제트 선생님은 그레그에게 모라와 선생님에게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요. 함께 읽어 봅시다.

“첫째로 너(모라)한테 사과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나(선생님)한테 사과해야 해.
내 교실에서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고 귀중한 수업 시간을 허비하게 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만화책 하나 때문에.”

(본문 98쪽)

그레그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 모라와 제트 선생님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2. 사과를 안 해도 된다.
사과를 안 해도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트 선생님은 그레그에게 묻습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갖게 되면 뭘 할 거니?”

(본문 111쪽)

여러분은 돈을 원하는 만큼 갖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 보세요.

9월 13일 금요일, 그레그는 청키 코믹스 첫 주 판매 목표 100부를 눈앞에 두고 교장 선생님에게 만화 판매 금지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라와 함께 바로 금요일 밤부터 새로운 만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1. 그레그와 모라는 좋은 파트너일까요?

2. 모라와 그레그가 각자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3. 둘은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모라와 그레그는 좋은 친구 사이일까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래 본문을 읽어 봅시다.

“돈은 한참 나중 문제야. 내 그림과 글이 좋지 않다면 사람들은 내 만화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아무도 돈 내고 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만화를 그리는 거야.”

(본문 185쪽)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굴어. 안타까운 일이지. 나는 돈을 많이 많이 벌 거야. 많을수록 좋아.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돈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그럴수록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본문 187쪽)

“그러니까 너도 나랑 생각이 같다 이거지. 돈 문제만은 아니란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레그는 모라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항상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대체로 그럴 뿐이다.

(본문 189~190쪽)

그레그는 모라와 함께 만화책 사업을 하면서 돈에 관한 생각이 점점 변합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갖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맘껏 적었던 [독서 활동지 19쪽]을 보며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항상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목요일 밤, 그레그와 모라는 교육 위원회에 갑니다. ‘학교에서 만화책을 팔고 돈을 버는 것’을 허락 받기 위해서요. 모라와 그레그가 교육 위원회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레그, 모라, 제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이야기가 흐를수록 생각이 변합니다.
 각각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그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라는 저금통을 깨기 위해 시작한 만화책 사업.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학교 매점 사업이 되기까지,
그레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나요? 본문 255쪽 문장을 읽어 보세요.

“그레그는 그렇게 돈을 마구 나누어 주어도
무척 기분이 좋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꼬마 사업가 그레그』를 읽고 나면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나요?
 선택 활동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해 봐도 좋아요.

만화 만들기

나도 만들 수 있다!

—
 A4나 8절 도화지를
 미니북으로 접어
 만화책을 만들자.

시장 놀이

경제 활동

—
 물건을 판매한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보다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

합리적인 선택

경쟁력 높이기

—
 내 만화를 많은 친구가
 볼 수 있게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찾아보기.

꼬마 사업가 그레그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늘 행복합니다.
돈의 가치와 진짜 행복, 건강한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읽어요!